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군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3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16사단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예산-삼지연철길공사가 완공을 눈앞에 두었고 백두대지의 흑한속에서도 대상건설에서 기적같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경험, 교훈을 놓고 1단계 전투총화를 의의있게 진행하여 앞으로의 공사방향을 바로 정하며 돌격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2단계 전투에 일제히 진입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하는 과정에 정든 집과 가정을 멀리 떠나 전투장에 배낭을 풀어놓은 건설자들이 삼지연군구리기에 불타는 충정을 다 바쳐가고있는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참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건설자들을 한사람, 한사람 모두 만나 뜨겁게 손을 잡아 주고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우리 당중앙의 이름으로 전투적인사를 보내었다는것을 전해달라고 철저히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구리기에 동원된 전체 건설자들과 군대인민들이 당의 의도대로 혁명의 시인이 열린 삼지연군을 전국의 모범군, 본보기군, 세상에 둘도 없는 산간도시로 훌륭히 전면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삼지연군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216사단의 전체 건설자들은 맹연 추위속에서 삼지연군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하늘같은 믿음과 해빛같은 사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현지지도의 편속강행군길에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최고령도자동지의 전투적파업을 철저히 관찰할 철석같은 맹세를 다짐하시였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또다시 진행하신 삼지연군에 대한 현지지도는 백두산아래 첫동네에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가 출기차게 흐르고 주체조선을 김정일조국으로 끝없이 빛을 뿌리게 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혁명의 성지를 꾸리는 성스럽고 보람찬 투쟁으로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뜻깊은 계기로 된다.

본사정치지도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무단덕이 높이 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이 8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시였다.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과 일꾼들은 한평생 국방력강화의 길을 걸고있으며 후손대대의 번영을 위한 억년 드물지 않을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태양영성의 언덕으로 올랐다.

그들은 나라의 자립적국방공업발전을 위하여 불면불욕의 헌신과 로고를 바치시였

으며 천이바이의 따뜻한 정으로 국방과학사들의 사명과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신 철새위인들에게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려왔다.

꽃바구니의 텃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씨가 모서리져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리들 총명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올리는 그들의 얼굴마더에는 신

어 우리 당 병권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 주체조선의 총합적국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한 승리자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어려있었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영원, 장군영원을 눈누신 현실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고 태양의 온함으로 빛나는 주체조선을 세계가 우리러보는 사회주의강대국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나갈 혁명적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김정일동지추모회 최고위원회의가 11월 15일 불면불욕토론회를 발족하였다.

불면불욕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오늘날도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시고 계신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사상과 로선들은 조선인민의 앞길을 밝혀주는 기로로 되고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어 조선인민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꽃이 피어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조선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기는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중의 업적이다.

불면불욕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공화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고 경제강국건설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으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걸음없이 걸으신데 대하여 세울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은 김정일령도자의 생전의 구상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길이 승송되실 것이다.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게 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백년백조의 항도적력량으로, 조선출 불멸의 사회주의국가로, 조선인민군을 무적불멸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사명과 믿음의 정치로 온 사회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면시키시였다.

조선에는 역사의 모진 광풍에도 끄떡없이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힘있게 전진시키나갈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어있다.

김정일각하께서 행행을 바쳐 이룩하신 업적은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김정일동지회고 슈로벤스프 회고위원회가 11월 25일 브라제슬라비아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슈로벤스프주체사상지 및 연구회 위원장인 슈로벤스프조선인민선업회 위원장 이완 드라클레시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그의 불멸의 혁명영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김정일동지회고 위원회가 11월 26일 스위스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서 스위스프랑크폰트에서 마세일리아노 아이의 스위스남부지역 주체사상연구소소 책임자 다비드 로제시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12월 1일부터 18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회고모임, 로작연구토론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김정일동지회고 로제시 나호 드까지위원회의 결성식이 11월 22일에 진행되었다.

나호드까지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로제시나호 방공산당 연례연장 나호드까지 위원회 비서 체르니호프가 선출되었다.

위원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깊이 빛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열렬한 흠모심을 토로 하면서 조선인민과의 면담성을 더욱 강화해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그의 성스러운 혁명영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김정일동지회고 위원회가

11월 24일 도이쉴란드프랑크폰트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프랑 당 위원장 토르스텐 쇠비츠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12월 17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그의 고귀한 혁명영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회고모임, 로작연구토론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가 11월 30일 덴마크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덴마크의 공산당 지도부성원 헬렌 야블링과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안데르스 크리스텐센이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그의 고귀한 혁명영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김정일동지회고 위원회가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에 보내는 호소문 채택

김정일동지추모회 최고위원회의가 11월 22일 내람공신당(남스-에년주)의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진행되었다.

내람의 정제, 사회계인사들이 참가한 회의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회고위원회의 주체로 임치토론회, 도서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진행하며 출판본도출물을 통하여 정세위원회의 고귀한 생애와 혁명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함에 대한 문제가

의의결정되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에 보내는 호소문은 2017년 12월 17일은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반이시며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각하의 서거 6돐이 되는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의 생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여서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성장하신 김정일각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가장

충실한 방조자, 혁명동지자 되시어 오랜 기간 그의 사명을 훌륭히 모라해드리시였다.

그이께서는 반세기여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 인민들사이의 친선및 련대성을 위하여 정면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조선의 존엄을 떨쳐주시고 인류자주위업선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김정일각하의 선군영도를 빛나게 계승하시어 자주정치와 단호한 결단으로

역사의 온갖 도전과 난관을 파 같이 물리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주체조선의 위용을 남김없이 과시하고계신다. 김정일각하의 업적은 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호소문은 세계 각국의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이 회고위원회를 결성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영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행사들을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